

# 어항 · 어장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송 영 택  
한국어촌어항협회 마케팅팀장

## I. 들어가며

어업인에게 주요 생산기반시설물인 어항은 일반국민에게는 해안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며 배후에 식당, 화장실, 쇼핑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인식된다. 어장도 기본적으로 어업인의 생산활동 영위 공간이지만 일반국민들은 낚시, 스쿠버 등 레저·해양관광활동의 장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하듯 어항·어장은 수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의 해양관광활동과 혼재되고 충돌하는 장소로 국민들은 다목적 이용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혼재와 충돌은 어항·어장 시설물 사용에 선점권을 가진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다. 어항·어장시설물에 대하여 어업생산 뿐만 아니라 수요에 맞춘 새로운 가치부여를 부여함으로써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1차·2차 산업인 수산업과 3차 서비스업(관광

산업 포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핵심시설로 어항·어장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시점이다.

여기에서는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항·어장 시설물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어촌관광 개발 여건

### 1. 어항·어장에 대한 국내관광 수요 증가

국내 관광 수요는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KTX, 고속도로의 확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바다를 찾는 관광객수도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 국민 관광 총량 중 총이동량을 살펴보면 1997년 344,176천명에서 2004년 358,943천명으로, 2007년에는 477,372천명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함께 국내여행을 경험한 만15세 이상 국민(2007년 기준) 중 74.3%가 여행방문지에서 수상/해변활동을

〈표 1〉 국민들이 경험한 수상/해변활동 : 복수응답(2006~2008)  
단위 : %

	바다 경관 관람	해수욕	어촌 관광	유람선 승선	바다 낚시	도서 여행	기타
'06년	77.5	29.7	11.4	12.4	11.4	6.7	3
'07년	87.1	22.9	9.3	7.8	7.7	7.2	5.7
'08년	84.4	31.5	7.4	7.6	8.5	4.8	2.4

경험했다. 또 경험한 구체적인 수상/해변 활동으로는 '바다경관 관람'이 84.4%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해수욕(31.5%), 바다낚시(8.5%), 유람선 승선(7.6%), 어촌관광(7.4%) 순으로 확인되었다<sup>1)</sup>.

위에서 나타난 수치는 수상/해변 활동 경험 중 단순 바다경관 관람형이 아직까지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촌관광의 공급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어촌관광은 시장창출 노력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잠재시장을 보유하고 있음도 말해 주고 있다.

## 2. 어업인의 어촌관광에 관심 고조

어업인도 어촌관광사업이 현재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사업으로 손꼽고 있다.

2008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의 어촌계장 및 회원조합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업인의 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어촌체험관광, 민박운영 등 어촌관광사업이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가 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향후 소득증가를 위해 해보고 싶은 사업으로 어촌체험관광(35.8%), 수산물 직판장 운영(21.4%), 특산

품 개발(20.4%), 민박(12.4%) 순으로 답하여 어촌 체험관광을 소득 증대를 위한 가장 매력 있는 사업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어촌관광사업 개발 및 확충(4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수산정책으로도 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강화(34.3%)에 이어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판매 촉진(30.7%)을 두 번째로 선호했다<sup>2)</sup>.

## 3. 관광형태 변화에 따른 어항, 어장의 가치 증대

최근 여가시간의 증대로 한국인의 관광 형태가 안정 욕구 추구의 탈출형 관광에서 소속감, 자존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형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목적형 관광이란 체험관광, 건강, 미용, 치유의 기능성 관광, 축제/이벤트/컨벤션 관광, 레저스포츠 관광으로 대별된다<sup>3)</sup>. 목적형 관광과 탈출형 관광의 시장점유율은 앞의 국민여행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보았듯이 아직은 탈출형 관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적형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탈출형이라고 하더라도 목적형 관광 요소가 포함되어질 때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어항·어장은 탈출형 관광을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바다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싱싱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맛보는 식도락, 몸으로 체험하는 낚시·수상레저, 어업인의 삶을 경험해 보는 어업·어촌체험 등 목적형 관광을 적절히 개발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1)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8

2) 어업인의 의식조사 결과보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8

3) 한국적 관광개발론, 엄서호, 2007

### Ⅲ. 어항·어장의 관광자원화

#### 1.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항/어장 시설물

##### ♣ 어항 시설물

어촌·어항법상에서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이다. 어항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어업활동의 지원기로서 어획물의 가공처리, 소비지로의 출하하는 장소이며 항내 수면에서는 고급어류의 일시 축양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업인 중심의 개념에서 최근에는 국민 모두의 다목적 이용시설로서의 개념이 추가되고 있다. 즉 국민여가의 공간으로서 어촌관광의 중심시설, 어항 배후공원, 친수공간, 마리나, 해양정보기지, 어업자원 관리센터 등의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다<sup>4)</sup>.

기본적으로 어항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관광시설이다. 어항은 관광객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하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축제 등 다양한 관광활동의 참여 장소가 된다. 또 유람이나 어장체험, 낚시레저의 시발점이며 다음 관광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수산물의 위판 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견학할 수 있는 산업시찰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 ♣ 어장 시설물

“어장”이란 수산동식물이 많이 정착서식(定着棲息)하거나, 무리를 지어 체류(滯留)하거나 또는 통과할 때, 그것을 대상으로 어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수역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을 말한다.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종묘방류,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 바다복장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어장은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산의 장으로 관광자원화는 수산업법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계5대 갯벌을 보유한 한국에서는 갯벌패류 양식어장을 유어장으로 활용하여 갯벌생태체험관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 정치망어업어장, 해조류양식어장에서도 어업체험이나 생태체험 관광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가두리 양식장이나 축제식 양식장도 가족형 바다낚시터로 인기가 높으며 또 육상수조식양식장도 어류관찰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공어초나 해중림은 수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 휴식지로 자원 조성을 통한 어장생산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관광적 측면에서 볼 때는 바다낚시나 수중 생태를 관찰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생태 교육 및 레포츠의 장으로의 역할도 크다.

인공어초나 해중림을 활용한 대규모의 친환경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바다목장도 적절한 해양레저시설을 도입할 경우 훌륭한 해양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외 어장시설은 아니지만 종묘생산시설이나 수산연구시설 역시 수산·해양생태교육의 장으로 훌륭하다.

4) 국가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09

# 특집-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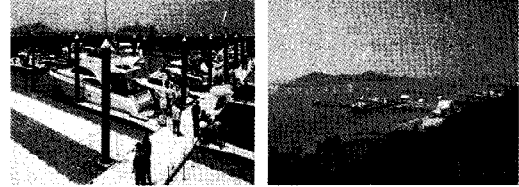
## 2. 어항·어장을 활용한 정부의 관광개발 사업

### ♣ 레저 어항 : 전곡항

〈표 2〉 정부의 어항·어장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

구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종합개발 (일부 관광조성)	테마항바다모장
기 간	2004~2013	2005~2013	2001~2013	1994~2013	1998~2012
사업비	2,405억원 (개소당 90~300억원)	1,775억원 (개소당 50~60억원)	708억원 (개소당 5억원)	8,759억원	1,589억원
규 모	13개소 '08년말 2준공	18개소 '08년말 3완공	112개소 '08년말 95완공	총230개권역 '08년 160 완료 2단계 60 시행중	울진, 태안, 여수, 제주, 통영 (07년 완료)
사 업 내 용	어항기본시설, 친수공간 및 조경시설, 민간의 수익사업을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등	마을정비, 관광안내센터, 특산물 판매장, 민박시설, 생태체험장, 낚시터(잔교), 산책로, 주차장, 조형물, 해안자전거도둑 등 관광기본시설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본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 (컨설팅, 주민교육훈련 등)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 어촌환경, 소득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등	홍보전시관, 수중테마공원, 바다낚시터, 갯벌생태체험관 *어업형(통영, 여수), 관광형(울진), 갯벌형(태안), 관광체험(제주)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그림 2〉 전곡항 전경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방어항이다. 연결한 제주도·궁평항·화성호 등과 연계한 경기도권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전국 최초로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다기능 테마어항으로 조성되었다.

요트와 보트가 접안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을 보강하여 2008년, 2009년 6월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개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다.

## IV. 어항·어장을 활용한 관광 운영 사례

### 1. 어 항

#### ♣ 다기능어항 : 마량항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한 마량항은 어항을 리모델링하여 2006년 다기능어항으로 처음 완공된 곳이다. 어항을 해양공원화한 곳으로 조명시설을 갖추어 야간에도 아름다운 어항의 경관을 감상토록 해 놓았다. 배후에 횃집 등 식당,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말마다 '야외무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근의 청자박물관,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1〉 마량항 전경

#### ♣ 어항 내 회센터 : 물치항 등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물치항은 한국의 유명 관광지인 설악산 진입구에 위치하여 가을 단풍철 여행객이나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19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어항 배후에 회센터를 건립, 어업인들이 36개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이 잡은 어획물을 자신들이 직접 회센터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어가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3〉 물치항 회센터와 주차장 전경

♣ 위판장 경매관람 프로그램 : 남해항 등

강원도 양양 남해항 등 동해안 어항에서는 경매관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어항내 위판시설에서 어업인들이 새벽 조업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위판하는 과정을 관람한 후 중매인을 통해서 생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원가에 중매인의 수수료만 덧붙인 정도로 갓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구매한 수산물은 포장하여 직접 가져가기도 하지만 인근 식당이나 민박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하여 관광객의 지출은 커지게 된다.



〈그림 4〉 경관 관람과 수산물 구매 전경

2. 어 장

♣ 갯벌생태체험유어장 : 서·남해안 어촌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한국의 서/남해안은 갯벌이라는 독특한 해안을 가지고 있다. 이 갯벌에서는 어업인들이 패류양식어장, 정치성어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되는데 체험장소를 유어장으로 지정하고 진입로, 화장실, 체험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인 결과 많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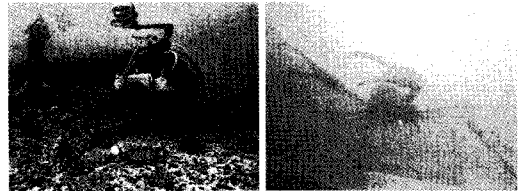


〈그림 5〉 갯벌생태체험 전경

관광객들이 어촌으로 유입되고 있다.

♣ 스킨스쿠버 잠수장 : 대진리 마을

경상북도 영덕 대진리마을은 마을주민들과 스쿠버숍 운영자간의 협의를 통해 마을어장을 개방하여 스킨스쿠버 전문 체험마을로 차별화를 이루었다. 자원이 풍부한 마을어장을 활용하고 철제폐선 인공어초를 투하 볼거리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으로 다이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마을에서는 배낚시, 명게양식어장체험, 후릿그물체험 등의 관광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그림 6〉 스쿠버다이빙과 인공어초와 함께 투설된 대게조형물

♣ 해상펜션 : 외동마을 등

전라남도 여수 외동마을은 돛형 해상펜션을 국내최초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정온이 유지되는 해역에 인공어초를 투설하여 자원을 조성한 후 해상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 콘도형 해상펜션 시설물을 설치한 것. 가족단위 낚시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연중 주말엔 예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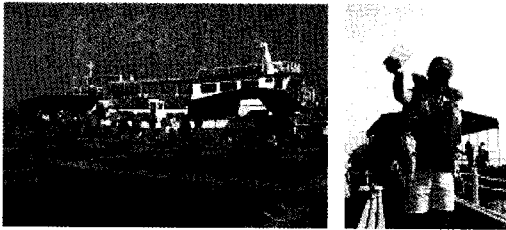
〈그림 7〉 해상펜션 전경

♣ 해상가두리 양식장 : 영항마을

충청남도 태안반도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영항마을은 인근 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운영되고 있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며 주변의 해상경관이 빼어나 유람선도 운영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곳에는 해상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많은데 이들 어업인 중 일부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상가두리 낚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을 활용, 인근 천수만 일대를 유람하고 난 뒤 우럭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체험을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잡은 고기는 마을 내 식당에서 회 또는 탕으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8〉 영항마을 해상가두리낚시 전경

### 3. 기 타

#### ♣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수산연구시설의 견학

육상수산시설을 수산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어촌체험관광과 수산교육을 접목시키고 더 나아가 수산물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육상수조식 양식시설은 평소 접근이 어려운 수산시설로 수산생물을 볼 수 있는 등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곳으로 인식된다.



〈그림 9〉 전복양식장 및 증묘배양시설을 견학하는 전경

## V. 어항·어장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향

### 1. 수산업의 가치 제고

어항·어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변관광 활동을 즐기려는 관광객은 수산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산업의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항·어장에서 관광프로그램 적용시킬 때는 어업체험, 식도락체험, 수산생물 생태체험 등 수산업의 인식을 넓혀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강화시키고 해양경관 감상, 해양레저체험, 해변놀이 등 수산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지역 특산수산물의 가치를 제고시킬 있도록 패키지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어항·어장을 방문하였 때는 그곳에서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 수산물이 있다면 그 지역을 재방문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관광(觀光)이란 빛을 본다는 뜻이다. 즉,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어장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란 수산과 관광의 접목을 통한 수산업의 부가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인 것이다.

### 2. 리모델링을 통한 목적형 관광 개발

관광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항·어장 시설물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목적형 관광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관광개발이 시행되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환경파괴는 친수공간 확보와 바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그 원인일 경우가 많다.

수산업의 생산시설인 어항 어장 시설물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친수·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해양관광개발 보다는 다기능 어항 개발 등 기존 어항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패한 관광시설물은 마을의 흉물이 되기 쉽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설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산업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성공적인 관광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시설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설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어야 한다. 즉 어항·어장 시설물을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목적물로 재탄생된다.

### 3. 마케팅 개념의 도입

아무리 우수한 자원을 가진 어항과 어장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변 관광지와와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밀한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운영과정이 필요하다. 즉,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어항·어장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관광매력물을 분석하여 표적시장을 찾아내고 그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품이란 특별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촌이 보유한 콘텐츠를 엮어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어항과 어장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경우 동·서·남해별로 해양적 특성이 다르고, 또 제철 수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홍보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강화도 필요하며 간판 등 싸인물의 통일과 자발적인 주변정리 정돈도 필요하다.

이해 관계자(어업인, 식당·숙박 운영자 등)들의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보제공이나 상호협조적 프로그램 관리도 노력해 볼 일이며 어항마다 상시 운영 중인 관광객 안내소를 운영도 필요하다<sup>5)</sup>.

그러나 어업인들이 이러한 마케팅적 관리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 무리한 일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일관성있는 지원체제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 IV. 마치며

어촌을 포함한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자인 어업인들도 어촌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항과 어장은 어업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휴식/휴양, 자연명승/풍경감상, 식도락 여행, 수영/수상레포츠/해변활동, 유흥/오락, 쇼핑, 생태체험 등 거의 모든 해양관광 활동을 수용할 수 있어 관광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현재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고 실제 어촌현장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어항·어장 시설물을 활용한 해양관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어항·어장을 활용한 관광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방향으로서는 수산물의 가치를 증대 시키고, 새로운 관광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한 목적형관광개발, 마케팅개념 도입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어업인들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

5) 전문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랑방 정도의 규모면 충분함